

글 _ 전홍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스포츠 경영과 나눔 경영



스포츠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경영진들은 경제현실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스포츠에서 찾고 있다. “기업경영과 스포츠는 닮은 점이 많다. 승부를 냉혹하게 가르는 스포츠처럼, 시장에서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은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하듯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한 경영인의 말을 이를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과연 경영인들은 스포츠의 그 무엇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스포츠를 통해 배우는 성취의 기쁨

고교시절 레슬링 선수생활을 했던 삼성의 이진희 회장은 ‘스키에서 도전정신을, 승마에서는 신상필상(信賞必賞)의 인사원칙을, 야구를 통해 통계와 전략 그리고 페어플레이를, 골프에서는 자율과 에티켓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한때 럭비선수였던 정몽구회장은 ‘열다섯 명이 협동해서 팀을 구성하고, 자기 위치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선수 하나하나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중요한 럭비의 스킴십과 팀워크를 강조’ 하는 럭비경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경영인들이 스포츠의 다양한 성격과 특성에서 기업경영의 새로운 원칙을 발견하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 배우는 것은 ‘승리와 패배’로 이어지는 이분법적인 결과만이 아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과정과 분명한 목표와 확신을 가지고 그 결과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또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이겨야만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스스로가 정한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싸워야 하며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감동시키는 것은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 곧 삶의 진정한 의미는 ‘승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성취’라는 점이다.

나눔 마라톤에 담긴 정신

도담E&C(대표 이명재)는 ‘전 직원의 건강 증진과 사내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지극히 경영론적(?)인 이유에서 마라톤대회를 열기 시작해 점차 가족들도 함께 동참하는 회사 전체의 행사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런 주입식 행사들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 출전했다는 한 직원은 “결승점이 가까워 올수록 빨리 들어가 쉬고 싶었고, 내가 왜 이렇게 뛰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뛰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지난 4월 사량의 열매와 함께 행사를 준비하면서 ‘1미터 1원’ 방식을 도입해 나눔 마라톤으로 내용을 바꾸고, 직원들이 땀 거리만큼 회사에서도 기금을 더해 주기로 하자 지루하고 힘들기만 하던 마라톤에 생기가 돌았다. 올해 다시 출전한 그 직원은 완주 후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완주를 못하면 남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될까봐 뛰고 뛰었다”고. 마라톤에 참여했던 경험을 적은 한 직원의 글에서 우리는 생각의 작은 전환, 그리고 실천이 얼마나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느끼게 된다.

“마라톤은 성급하게 초반에 달려들어서 완주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습량에 맞춰 레이스 계획을 세우고, 인내심과 겸손함으로 한발 한발 내딛는 운동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직원들은 힘든 업무 중에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겸손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마라톤 정신으로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저희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아스팔트에 뿌려진 땀, 그만큼 더 끈끈하고 단단해진 동료애, 그리고 그 땀의 결과로 만들어낸 117만원은 그래서 더 아름답고 소중한다.